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4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66: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21장(새 21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9번(새 13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를 선택하시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결코 허상이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요한복음 6:51-58 인도자
- 찬양(Anthem)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 봉 헌(offering) 349장(새 214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219장(새 540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친교후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소망 속회로 모입니다.
3. 클리브랜드 한인회 주소록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UMC 총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됩니다. 교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9:27

누가 보기에도 선하고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권리조차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이 정도는 당연히 관찮겠지!'하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권리를 사용했을 때 결과와 영향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자아(내 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요한복음 6:51-58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1.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지게 되며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까? (51절, 53-55절)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고 그분을 영접하였습니까?
2.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56-58절) 나는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 인간은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함께 있는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 혹은 영이나 혼으로만 살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 혼(지, 정, 의), 육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혼과 육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려고 하기에,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고전 2:13).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영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육에 속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단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영역에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까지 합니다(요6:15).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생명을 위한 떡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신8:3)”을 알았지만, 오직 육적인 생명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